

“가볍게 여행하라, 간단히 하라”
“Travel Light, Keep It Simple”

(누가복음 9:1-6; Luke 9:1-6)

원대한 꿈을 안고, 가득 찬 희망을 품고 시작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새하얀 백지로 주어진 365 일의 시간이 불과 30 여시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매듭짓기 순간에는 진한 아쉬움과 섭섭한 여운만 남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2019 년을 맞이하기 전에 조용히 올 한 해를 정리해 보십시오. 연말이 되면 모든 이들의 머리 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다사다난’입니다. 2018 년 정말 많은 일이 펼쳐졌고,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숨 쉬인 어조로 다사다난을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사다난 (多事多難) 아니라 다사다은 (多事多恩)입니다!** 때로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 사이 사이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Year 2018 which we started with big dreams and full of hope is coming to an end. Out of 365 days given to us, only 30 hours are left before a new year. Every time we face a moment of wrapping up, only intense regrets and disappointments linger. Let's quietly wrap up Year 2018 before we excitingly greet Year 2019. One phrase always comes first to everyone's mind at the end of year is 'an eventful year with lots of trouble (da-sa-da-nan).' Good job to you for coming thus far after all that have happened in Year 2018. Becoming a Christian means to be differentiated from the world. When people are complaining about an eventful year with a deep sigh, you and I should be able to remember grace of the faithful God. **It is not an eventful year with lots of trouble but a year with much blessings throughout many events!** Sometimes it was hard to endure but as we reflect those times, we find each moment has been filled with God's grace.

인생은 긴 항해입니다. 2018 년, 또 2019 년은 한 정박지에 다른 도시로 가는 긴 항해의 한 구간이지요. 오늘은 여러분과 여행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두 주 이상 되는 긴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처럼의 여행을 예약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준비 많이 하실 겁니다. 아니 이게 시작부터 어찌된 일입니까? 비행기 타고 출발 도시에 내렸는데, 가져간 큰 여행가방이 보이질 않습니다. 급한 대로 옷을 몇 개 비싼 값을 내고 삽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갑판 위의 날씨를 막아 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가방을 잃어 버리면, 입을 옷이 없으면, 즐거워야 될 여행이 참 힘들어 집니다. ‘괜히 왔나’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산해진미를 즐길 수 있는 여유도 사라집니다. 옆친데 덮친 격으로 낮에 잠시 내린 도시관광에서 지갑 마저 잃어 버립니다. 이쯤 되면 여행의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고, 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지지요.

Life is a long journey. Year 2019 as well as Year 2018 is one section of a life journey we travel from one port to another. Today, I'd like to share a story about traveling. Let's imagine we will

be on a cruise to travel for longer than two weeks. After finishing reservation, with much excitement and anticipation, you may prepare many things for our upcoming trip. Alas, what is happening? The real portion of trip hasn't even begun, but when you arrived at the destination airport, you cannot find your luggage. So, you are forced to purchase a few of very pricy clothes, but those clothes are not enough to keep you comfortable from unforeseen weather changes on the ship deck. You are losing fun from the trip. The moment you think 'I shouldn't have made this trip,' you have no appetite even in front of so many delicious dishes. To make things worse, you lose your wallet during a day excursion. By then, you completely lose fun from the trip and only want to go home.

주님도 인생살이에 의식주의 문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을 선교 보내시면서 거의 빈 몸으로 파송 하십니다.

Jesus Christ must have known that food, clothing and shelter are so important in life. However, he sent His beloved disciples for missions with empty hands.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두 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누가복음 9:3)

“Take nothing for the journey—no staff, no bag, no bread, no money, no extra shirt.” (Luke 9:3)

보통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 할 때 재정적인 후원을 약속합니다. 선교사님이 온전히 선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지요. 만약 선교사가 그날 먹을 끼니만을 걱정한다면, 선교에 큰 차질이 생길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님의 선교사 파송 방식은 참으로 특이합니다. 예수님은 물질적인 후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 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오히려 있는 것도 다 놔두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가져가지 말아라! 돈도 옷도 가져가지 말아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장 먹을 것, 내일/모래 먹을 것, 아무 것도 없이 전도 여행을 보내신 것입니다. 빵이면 당장 먹거리가 해결되고, 돈이 있으면 장사해서 먹고 살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 되어 전도도 할 수 있고, 사역도 계속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매우 인간 중심적인 위험한 생각입니다. 세월이 흐른 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 경험을 다시 기억하도록 물으십니다.

When a church dispatches a missionary, the church promises financial support. It is to make the missionary only focus on missions. If a missionary were to worry about his or her daily living, the mission cannot be carried out as planned. The way Jesus Christ dispatches His disciples for missions is so special. He didn't seem to be mindful at all in financial support for His disciples. He ordered them not to bring anything, even the stuffs they have. “...no staff, no bag, no bread, no money, no extra shirt!” What is He saying? He dispatched them without any food. If they have bread, they don't need to worry about food; and if they have money, they can support themselves by starting a business. Once they resolve the issue of food, clothing and shelter,

they can spread the gospel and continue their missions. But such thoughts are very human-centered and dangerous. Sometime later, Jesus Christ asked His disciples about their mission experience.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2:35)

“When I sent you without purse, bag or sandals, did you lack anything?”

“Nothing.” (Luke 22:35)

처음엔 아무 것도 없이 빈 몸으로 선교를 보내신 주님을 원망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시간이 한참 흐르고 비로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했을 겁니다. ‘물질에 의지해서, 내 능력과 내 계획에만 의지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없다!’ 진정한 믿음은 순서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At first, they may have resented Him for not providing them anything for their trip. But as time goes by, they probably began to understand His heart. ‘If you rely on material, your ability or plan, you can’t carry out God’s missions!’ **The true faith is to set the order straight.** It is very important to realize what comes before anything else.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 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마태복음 6:25a, 27)

“... do not worry about your life, what you will eat or drink; or about your body, what you will wear.

...Can any one of you by worrying add a single hour to your life?” (Matthew 6:25a, 27)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33)

But see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Matthew 6:33).

이스라엘은 날마다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광야 벌판에서 매일 매순간 어김없이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신고 나온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귀한 은총도 체험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식주 없이 살 수 있다’가 아니라,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와 나중의 문제를 잘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Israelites experienced God’s grace through His daily provision of essentials. He provided them food every day without fails. They also experienced a precious grace that their shoes, which they were wearing when they left Egypt, didn’t wear out. It is God’s faithful love that protects us with fiery eyes. I hope you don’t misunderstand today’s verses. It doesn’t mean you can live without food, clothing and shelter, but it rather means **there is something more important than**

food, clothing and shelter. God takes responsibility for those who can faithfully discern what's more important.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마태복음 10:10b)

For the worker is worth his keep (Matthew 10:10b)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마련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엄청난 놀라운 꿈을 꾸길 원하십니다. 비록 지금 당장 우리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가슴을 활짝 펴고, 하늘 향해 눈을 높이 들고, 큰 비전을 갖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복음의 능력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바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십자가를 감당했던 수많은 순교자들 그리고 우리들. 시간과 공간, 언어와 문화를 뛰어 넘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입니다.

First, if we become servants of God, God will satisfy our needs. When we first seek His kingdom and righteousness, God provides us the best thing in His good way. You and I are the children of God. We did not come to the earth just to live and sustain our lives for daily foods. God wants each of us to dream enormous and amazing dreams. Even though our current lives make us struggle, don't despair and be disappointed. God wants us to open our hearts wide, look up the sky, and have big visions. Peter, the best disciple of Jesus Christ, Paul who boldly proclaimed the power of gospel, so many martyrs who bore the cross without names and light, and we have one thing in common beyond time, space, language, and culture. What is it? It is we are commissioned by God as apostles.

권사, 장로, 집사라는 직분이 우리의 본질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교회 직분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주신 직함입니다. 이런 직분이 이전에 모든 크리스찬은 주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가 사도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삽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듣고도 못들은 척하기 때문입니다. '보내심'을 받기 전에 반드시 먼저 '부르심'이 있었습니니다.

Deacon, exhorter and Elder positions at church cannot define our real identity. The church positions are given to church members to build the church wholesomely. Before any of the church positions, Christians are called as the Lord's apostles. You and I are all holy apostles who are called to build up the kingdom of God. Why then do we forget this fact? It is because we don't listen to the Lord's calling or ignore His calling. Before we are commissioned by God, we first had God's calling.

[예수께서] 열 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둘씩 보내시며 (마가복음 9:7a)

[Jesus] called twelve disciples nearby, and sent them in pair. (Mark 9:7a)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부르심 경험하지 못하면, 보내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주신 적이 있습니다. 각자 달란트와 사명에 따라 주신 사명이 다릅니다. 그것이 선교일 수도 있고, 전도나 구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평범하게 주님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아름다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본적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초대하실 때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품어야 될 영혼, 내가 맡아야 될 주님의 사역이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It is so obvious. If we can't experience His calling, we can't be commissioned. Consider it thoroughly. Clearly, there was a time when the Lord called you personally. The calling may be different from others depending on your talent and mission. It may be going on a mission, spreading the gospel, or helping the needy. If not, it may be just an ordinary but beautiful life that radiates the fragrance of the Lord. Have you ever answered the Lord's calling? If not, at this moment, listen to the holy voice of the Lord now. When the Holy Spirit invites you with a still voice, respond to Him with 'Amen.' Think of a soul you need to embrace and the Lord's work that you need to undertake. Be a Christian who follows the Lord, not a church goer.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주님은 우리를 결코 준비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훈련시켜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If we meditate the Word deeply, we realized the Lord never sent us unprepared but after thorough disciple and training.

첫째, 홀로 외롭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짝을 지어서 파송 하십니다. 혼자 홀로 사역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사탄의 유혹과 시험 앞에 노출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내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일을 감당해야 되나?’ 자주 마음 속에 의심이 생깁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혼자 가지 않았습니까. 위로의 아들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First, He never sent His disciples alone. He sent them in pair. Nothing is more dangerous than doing the Lord's work all alone. When one does the Lord's work, there are many occasions that he or she is exposed to Satan's temptations and tests. They often doubt "Why do I have to be responsible for such difficult and painstaking tasks alone?" In the Book of Acts, the great Apostle Paul did not go alone on mission trips. He went with Barnabas whose name means the son of comfort. We need comfort and encouragement all the time.

둘째, 말씀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빵이나 돈이 아닌 ‘말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약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신뢰하기 때문에 약을 만들고, 또 그 약을 받아 먹습니다. 주님의 처방전은 바로 '말씀의 권능'이었습니다. 개인 수표도 마찬가지이지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표의 주인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분은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Second, God gave the power of His words. He gave ‘the authority of His words’. You can buy important medicine only through doctor’s prescription. Pharmacists prepare medicine based on the prescription because they trust the doctor’s prescription; and you take the medicine. The Lord’s prescription was just ‘The power of His words.’ It is the same with a personal check. The owner of a personal check, not the amount on the check, is important. The one who gave the authority to the disciples was the Son of the living God, Jesus Christ.

예수께서 그 열 둘을 한 자리에 불러 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누가복음 9:1)

When Jesus had called the Twelve together, he gave them power and authority to drive out all demons and to cure diseases.

제자들은 주님의 처방전을 붙들고, 천국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10:7) ‘회개하라’ (마가복음 6:12) 말씀을 전합니다. 당장 눈 앞에 펼쳐진 의식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The disciple proclaimed the heavenly gospel while they were holding onto the Lord’s prescription. They deliver God’s words,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Matthew 10:7) and ‘Repent’ (Mark 6:12). Their focus was not about satisfying their daily living essentials.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Repent!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귀신으로부터 놓임을 받고,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여기서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Then, those who listened to God’s words and responded with faith were released from demons and free from physical diseases. Here, the order is important. Sincere repentance must come first. Repentance will lead to healing and recovery.

[1]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2] 병든 사람을 고쳐 주게 하시려고... (누가복음 9:2)

Jesus commissioned them to preach the news of God’s kingdom and heal the sick. (Luke 9:2, The Message)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부족이 아닌 ‘채워 주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없는 것, 필요한 것, 결핍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자,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을 깊이 살펴 보세요. 먼저 말씀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명 선언문’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바로 ‘말씀 선포’와 ‘치유’입니다.

In order to understand God’s words precisely, we should focus on His provision rather than our needs. In our life journey, we often focus more on what we do not have and what we need. Let’s

closely examine the scene where the Lord commissions the disciples. First the Lord dressed them with the power of the Word. And then, the Lord prepared them with the very concrete and clear ‘declaration of mission.’ It is the ‘proclamation of God’s words’ and ‘healing.’

무책임해 보일 수 있는 주님의 파송을 통해 두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Travel Light ‘인생의 짐을 가볍게 만들라’ 입니다. 대학시절 목직한 베낭 메고, 한 달간 유럽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출발 전에는 꼭 필요한 것들이 여행 중에는 짐이 돼서 자꾸만 가방을 비워냈지요. 만약 제자들이 선교 여행 동안 먹을 음식을 모두 가져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레 몇 개씩 끌고 머리와 등에도 짐이 가득했을 겁니다. 여행에 관한 경구는 긴 인생 항해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If you wish to travel far and fast, travel light.” -Ceasare Pavese-

“On a long journey even a straw weighs heavy.” -Spanish Proverb-

I’d like to find two spiritual lessons through the Lord’s commission, which on surface looks very irresponsible. **First, ‘Travel Light!’ it is to make the life burden light.** During college days, I traveled Europe for a month as a backpacker. My backpack was full of travel essentials; but later those became burden during the trip so that I had to throw them away. What if the apostles carried all food they need for mission trips? They must have hauled a few carriages as well as backpacks full of food and other essentials. Epigrams to travel apply to all of us who are on a life journey.

“If you wish to travel far and fast, travel light.” -Ceasare Pavese-

“On a long journey even a straw weighs heavy.” -Spanish Proverb-

광야 같은 인생, 두툼한 장막과 땀감, 목직한 먹거리를 이고 지고 가지 마십시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맡겨 보십시오.

Let’s not carry heavy loads in this life journey of wilderness. Let’s leave it to God who guides us with the pillar of cloud by day and the pillar of fire by night.

두번째 영적인 교훈은 Keep it simple ‘단순함의 영성’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말씀을 멋지게 의역했습니다.

Don’t load yourselves up with equipment.

Keep it simple; *you* are the equipment. (Luke 9:3, the Message)

The second lesson is ‘Keep it simple.’ It is ‘spirituality of simplicity’. The Message version of the Bible nicely interpreted it as ‘Don’t carry anything.’

Don’t load yourselves up with equipment.

Keep it simple; *you* are the equipment. (Luke 9:3, the Message)

필요한 모든 것을 바지런히 챙겨가는 것이 아닌 '선택과 집중'의 단순함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육중한 갑옷과 칼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자그마한 조약돌이면 충분합니다.

It is not to carry all the essentials, but the simplicity of choice and concentration. What David needed to defeat Goliath was a stone only, not a heavy armor and a sword. Just a small stone was enough.

새해에는 더 많은 사역과 프로그램보다 Keep it simple 단순함을 추구 하십시오. 가지를 치는 이유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와싱턴한인교회 모든 사역을 'Preach the Gospel, Heal the Sick'에 집중 하십시오. 영적 진리는 우선 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의 막힌 담이 있다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만이 나와 내 가정을 누르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초대하는 가장 확실한 '초청장' 입니다. 먼저 회개할 때 우리 영혼이 거룩해지고, 우리 삶에 질서가 새롭게 세워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이 쫓겨가고, 육신의 질병도 깨끗하게 나음을 받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만드는 관계의 문제도 해결 받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며,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Next year I hope we would pursue 'Keep it simple,' or simplicity rather than serving more ministries or programs. A reason for pruning is to bear fruits abundantly. Let us concentrate all of our church ministries in KUMCGW on 'Preach the Gospel, Heal the Sick.' The spiritual truth is a matter of priority. If you think any wall exists between God and you, I suggest you to repent first. Only the real repentance can defeat the power of Satan suppressing us and our home. Repentance is the most definite invitation to be anointed by the Holy Spirit. When we repent first, our spirit becomes holy and the order of our life is renewed. Satan is defeated by the name of Jesus Christ; and we can be healed from our disease. Our difficult relationship problems can be resolved. I bless all the beloved church members celebrating the New Year.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요한3서 1:2)**

Dear friend, I pray that you may enjoy good health and that all may go well with you, even as your soul is getting along well. (3 John 1:2)

주안에서 'Travel light, Keep it simple.' 단순함의 영성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Travel light, Keep it simple!' in Jesus Christ. I hope you would win in the spirituality of simplicity.